

## ITER 프로젝트 추진계획

김병철, 허남일, 박현기, 이경수

핵융합연구센터

한국이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ITER 프로젝트는 선진 7개국(한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인도)이 공동으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실증을 목표로하는 열출력 500 MW, 에너지증폭율(Q) 10 이상의 핵융합실험로 건설 프로젝트이다. 2005년 건설부지(프랑스 카다라쉬)가 결정되었고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행협정의 최종안 마련됨에 따라 금년부터 장치건설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ITER 관련 사업을 총괄할 전담기구로 핵융합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센터내의 ITER 사업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ITER 관련 연구는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한국이 조달해야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와 향후 조달 품목 제작에 필요한 국내 사업추진계획을 소개 한다.